

한글 活字의 書體 開發에 바친 한평생

崔 貞 淳

(서울시스템 서체개발부 고문)

1. 왜 한글 활자의 서체를 개발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볼 수 있다.

(1) 기존 활자체는 아직도 손질할 데가 많기 때문에.

(2) 납활자와 수동사식기의 글자(아날로그 글자)보다 컴퓨터로 생산되는 글자(디지털 글자) 시대가 와서, 많은 종류의 활자 서체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3) 활자 서체 종류가 많지 않아서, 개량 또는 개발해야 할 서체가 많기 때문에.

(4) 로마자, 가나 글자, 한자 등의 서체는 다양하면서도 미적으로도 잘 다듬어져 있는 데 비하여, 한글의 활자 서체는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수년 전까지만 해도 납활자를 주로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납활자는 동자모(銅字母) 또는 조각자모(彫刻字母)에 의해서 생산되며, 그 자모에 납을 녹여 부으면 수만 자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모형(母型)이라고도 이른다.

과거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모형을 양산(量産)하기 위해 부형(父型)을 만들어 써 왔다. 조각 자모가 음각(陰刻)인 데 비하여 부형은 양각(陽刻)으로 되어 있어서, 글자도 훨씬 정교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이것은 원자(原字)아비(활자의 원도를 그리는 사람)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원도 기술이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한글 자체(字體)의 기본이 다듬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좋은 활자가 나오기 어렵다고 본다.

광복된 지 4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6·25 동란 등 사회적 격동이 거듭

되었지만, 모든 분야에서 눈부실 정도로 발전되어 있고 또 되어 가고 있는데, 문화 발달의 기본 요소가 되는 활자 서체가 만족스럽게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뜻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루바삐 아름답고 실용적인 서체가 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실할 것이다.

그러나 활자 서체 개발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이 엄청나게 소요된다는 일이다. 들어가는 자금의 몇 배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 누가 했어도 벌써 해 놓았을 테지만, 이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투자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에서 서둘러야 했다.

그러면 우선 개량이나 개발을 해야 할 원자(原字)는 몇 자나 될 것인가? 한글 원자만 25,000 내지 30,000 자이고, 이것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3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도 기본 서체에 한해서 말이다.

그러면 여기서 근대 이후 활자 서체가 어떻게 개발돼 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2. 우리말 성서 발간에 쓰인 근대식 납활자의 글씨

1880년대 말 한글 납활자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자본(字本)은 공주(公州) 출신 최지혁(崔智赫)이 썼다. 이와는 별도로 1882년에 만주 봉천(奉天)에서 서상륜(徐相崙)과 백홍준(白鴻俊)이 자본을 써서 목활자(木活字)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일본 주재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에 보내져, 일본 요코하마(橫濱)에서 납활자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보면, 도장나무를 일정한 규격으로 활자 몸집과 꼭 같게 깎고, 얇은 한지(韓紙)에 자본을 잘 써서 각목(刻木)에 전사(轉寫)한 다음 조각을 하되, 활자 모양으로 글자 이외의 부분을 파낸다. 목각(木刻)을 한테 묶는데, 사이사이에 연판을 끼워서 한개 한개 독립을 시킨 후에 흑연가루칠을 한다. 그리고 전통(電筒)에 넣어서 동(銅)을 올리는데, 0.2mm 두께가 되면 다시 떼어낸 다음, 이번에는 뒤면에 동을 두껍게 올려서 가공을 하면 전태자모(電胎字母)가 되는 것이다.

이 활자의 서체는 한자 한자 따로 보면 별로 잘된 글씨 같지 않으나,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오늘에 이르렀는데도 이 서체에 대해서는 단점을 지적하는 논의가 없고, 7포인트(6호)로 축소 인쇄를 해도 개량한 활

자 8포인트보다도 오히려 키 보일 정도로 가독성(可讀性)이 매우 우수한 데는 감탄을 금치 못한다. 마치 된장국 맛과 같이, 늘 보아도 구수한 맛을 풍기고 있는 서체라고 하겠다.

3. 경편자모(輕片字母) 시대로부터 C.T.S. 시대까지

8·15 해방 이전은 물론이요, 6·25 동란 직후까지 고 박경서(朴慶緒) 옹이 손조각한 활자를 경편자모(일명 '전태자모')로 만들어서, 그 자모에 의하여 활자를 주조(鑄造)하고, 조판 인쇄를 해 왔다. 그분이 8포 활자를 위시해서 9포, 5호, 4호까지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나마도 5호까지 세 종류는 일본인 하쓰다 활판(初田活版)이 자금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라 한다. 당시에는 한자 자모는 일본에서 가져왔고, 한글 제목은 고 박경서 옹과 납북된 최모 씨, 고 조정수 씨에 의해서 만들어져 쓰이다가, 벤톤 자모가 나타나게 되니까 전부 버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국립 박물관에 소장했어야 할 물건인데, 참으로 애석한 느낌이 든다.

4. 벤톤 자모에 대하여

필자는 사변 당시인 1953년 5월에 서울 신문사에 입사하여 목각 조각(木刻彫刻)으로 없는 활자 보충 작업을 하다가, 기계로 조각하는 시대가 불원간 올 것을 예견하고 조각기에 대한 연구를 1년여 동안 해 보았다. 그러나 완성은 할 수 없었고, 다만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문교부 방침에 의하여 일본에 가서 기계 조작법과 원자(原字) 설계법을 배워 가지고 와, 국정 교과서 회사에서 국민 학교 교과서의 활자를 생산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최초의 주자(走者)로 활자 개량 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퇴근 후에는 평화당 인쇄(주)의 청탁을 받아 출판사 용 국문 명조(明朝)의 원자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서체 개발에 있어서는 황무지를 개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의논하거나 물어 볼 상대도 없고, 다만 당시 문교부 편수국장이던 고 최현배 님이 주도하시는 '한글 서체 개발 연구회'에서 매월 1회씩 연구 발표회를 가졌는데, 그 때마다 공병우(公炳禹) 박사와 문교부 편수국 촉탁 이홍용(일명 이임풍), 그 밖에 대학 교수 세 명과 필자 등 5,6명이 실무 없이 이론만으로 발표를 하였다. 그래도 그 발표회 때문에 한글 원자 중 고딕 서체를

제작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한글 명조 활자 서체는 본디 명조가 아니고 해서(楷書)라고 해야 될 것인데, 한자 명조에 혼합해서 쓰이기 때문에 부르기 쉽게 명조라고 일컫게 된 것으로 안다. 아무튼 한글 명조 서체를 처음 만든 고 박경서 옹의 활자 서체를 본받아서 만들어 평화당 인쇄(주)에 납품을 하였고, 그 서체의 본을 고 최정호(崔正浩) 씨에게 하청을 주어, 그분이 삼화 인쇄(주)에 제공한 것이 현재까지 전국의 출판 및 인쇄업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또 필자가 개발한 고딕체가 보급되어 쓰이고 있다. 그 때부터 고 최정호 씨는 일본의 모리자와 사식 회사와 (주)사연 회사(寫研會社)에 수십 년간 한글 원자 글씨를 수출해 왔고, 필자는 전국의 신문사를 상대로 자모(字母) 영업을 해 왔다. 그리하여 각 신문사가 일본에서 수입하던 대소 한자 활자와 자모는 필자의 서체로 된 자모로 대체하게 되었다. 기억나는 큰일로는, 1965년 9월에 창간된 중앙 일보사의 활자 자모 전부를 제작한 일과, 1968년 2월 한국 일보사 화재로 인하여 활자가 다 타 버렸는데, 다행히 필자의 공장에 모든 글자판이 있었기에 단시일에 복구할 수 있었던 일을 들 수 있다.

5년 전에는 서울 신문의 한글 활자 서체를, 본문과 제목 등 명조와 고딕을 합해서 여덟 벌을 만들어 주었는데, 일본의 사연 회사(寫研會社)로 보내져서 전산 사식(C.T.S.) 기계와 함께 수입이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서체 개발이 어려우나, 현재는 회사에 소속돼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제목 글자에 치중해서 개발해 볼까 한다. 별첨 내용과 같이 신문의 본문용 활자는 개량을 거듭한 것이 일곱 번이고, 출판 인쇄용으로 명조 한 벌을 최근에 개량했으며, 원생 10명과 함께 서울 시스템의 컴퓨터용 글씨를 1년여 동안에 2만여 자 제작하였다.

맺는 말

한글 활자 글씨(원자)를 제작하는 데는 선천적인 재능도 있어야 하지만, 후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원자를 설계, 제작하는 기술과 방법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그 비결(秘訣)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글씨를 쓰는 기본으로서 서예(書藝)를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야 서체에 대한 미적 감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누가 어떤 평을 하더라도 좋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계속

적인 발전이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년이 58 세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하게도 71 세에 회사의 특채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다. 학문적 지식보다 전문적 기능이 우대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한 글 신 서 체 개발

예느○계에서 스스○으로 바꾸기라느 어근마나
 누느따가우느 이근이느가. 스스○의 어휘르느
 휴느내내어야마느 마으미이 펴느아느하고
 자사느마느의 도느트느하느 새느까느으르
 차스느느 이근으느 두려우느 이근이다. 차느하
 고 대가여라느 제자이근수로느 스스○의 그
 느근에서 헤어나지 모느하며 개서○이 가○
 하느 제자이근수로느 튀○겨져 나가 아○
 우근하느 대하느새○화근으르 보내느느 겨○
 우가 마놓다.